

2022. 4. 28

Tech팀

황민성
팀장
m.s.hwang@samsung.com

류형근
Research Associate
hyungkeun.ryu@samsung.com

▶ AT A GLANCE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100,000원	54.3%
현재주가	64,800원	
시가총액	386.8조원	
Shares (float)	5,969,782,550주 (75.2%)	
52주 최저/최고	64,800원/83,200원	
60일-평균거래대금	9,906.9억원	

▶ ONE-YEAR PERFORMANCE

	1M	6M	12M
삼성전자 (%)	-7.0	-8.3	-21.1
Kospi 지수 대비 (%pts)	-4.9	3.4	-5.9

▶ KEY CHANGES

(원)	New	Old	Diff
투자 의견	BUY	BUY	
목표주가	100,000	100,000	0.0%
2022E EPS	6,834	6,775	0.9%
2023E EPS	6,650	7,342	-9.4%

▶ SAMSUNG vs THE STREET

No of estimates	24
Target price	98,000
Recommendation	4.0
BUY★★★: 5 / BUY: 4 / HOLD: 3 / SELL: 2 / SELL★★★: 1	

삼성전자 (005930)

1분기 실적: 이것이 최선인가요?

- 경기불안과 수요에 대한 우려로 주가는 호실적에도 부진
- 기술 경쟁력 우려에 대한 회사의 답변은 부족하였다는 판단이지만, 우려는 과하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
-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유지

WHAT'S THE STORY?

1분기: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부진: 많은 개인 투자자를 포함하여 투자자가 지금 경기와 수요가 불안해도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기가 개선되면 더 높은 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많은 질문이 삼성의 경쟁력에 집중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대답을 받지는 못하였다는 것은 아쉬운 점. 기술 난이도 증가로 경쟁사와 원가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가, EUV 등 신기술을 도입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는 답변은 과연 최선의 답변인가라는 의문.

물론 틀린 답변은 아니라는 판단. 현재는 10년 주기로 전환되는 반도체 기술의 변곡점으로 DUV에서 EUV로 기술의 중심이 바뀌고 있음. 경쟁사 보다 선도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중장기 관점에서 다시 격차를 벌려 나갈 것으로 예상. 그러나 그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불안한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

디램 경쟁력. 뒤집기는 쉽지 않다

삼성전자의 1b 디램 (12.8나노)이 개발 과제에서 Drop(취소)되었다는 보도는 일정 수준은 사실이라는 판단. 삼성전자는 1b 대신 1a와 1b의 중간단계인 1abs (1ab superset)로 1b를 대체하고 있음.

양산 시점에서는 당초 목표였던 1b와 1abs가 내년 2분기 초로 같고, 1abs가 웨이퍼당 칩 수는 조금 떨어지지만 1a 기반에서 파생된 만큼 수율을 조기에 확보하기에는 쉬울 것. 기술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성숙한 기술제품을 적기에 제공하는 최적화가 우선이라는 삼성전자의 설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또한 이제 삼성이 1a에서 EUV에 대한 학습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기술의 변곡점에서 신규 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는 옳은 전략이라고 판단.

SUMMARY OF FINANCIAL DATA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20	2021	2022E	2023E
매출액 (십억원)	236,807	279,605	320,183	350,898
영업이익 (십억원)	35,994	51,634	61,684	60,359
순이익 (십억원)	26,408	39,907	47,203	45,934
EPS (adj) (원)	3,841	5,777	6,834	6,650
EPS (adj) growth (%)	21.3	50.4	18.3	-2.7
EBITDA margin (%)	28.0	30.7	31.0	28.7
ROE (%)	10.0	13.9	14.6	12.7
P/E (adj) (배)	21.1	13.6	9.5	9.8
P/B (배)	2.1	1.8	1.3	1.2
EV/EBITDA (배)	6.8	5.0	3.3	3.1
Dividend yield (%)	3.7	1.8	2.2	2.2

자료: 삼성전자, 삼성증권 추정

그러나, 마이크론의 1b (마이크론은 1b까지 EUV를 쓰지 않음)가 이미 웨이퍼 아웃이 되고 있어 삼성전자보다 1년이 앞서고, 웨이퍼당 칩 수(넛다이)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1b가 삼성전자의 1b보다 앞서는 것도 염연한 사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앞서는 것일까? 개발에서는 앞섰지만 종합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 우선 최종 결과인 영업이익률에서 마이크론은 아직 삼성전자에 5% 포인트 뒤져 있는 상황. 지난 2년간을 보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5~10%정도 뒤쳐져 따라오고 있음. 때로는 마진 격차가 좁혀지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순위가 바뀌지만 쉽게 삼성전자 따라오기가 어려움.

우선 규모의 경제에서 차이가 발생. 또한 마이크론의 경우 개발에서는 앞서 있지만 EUV 없이 패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텝 수 증가가 고민. 당장은 필요하지만 EUV가 본격 도입되면 필요하지 않은 장비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결국 EUV의 성공이 반도체 공급사들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면 수급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것.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는 디램 양산에서 1~3대 정도의 EUV를 가동 중이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구매량을 합쳐 10대 후반 수준에서 가동할 것으로 예상.

1b가 2023년 양산이 본격화된다면 메인 공정으로 자리잡는 것은 2024년 이후가 될 것.

그렇다면 2024~2025년에는 EUV를 확보하려는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렌즈 부족으로 ASML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EUV의 노하우와 함께 확보에도 경쟁력이 갈리는 것. 삼성전자는 올해도 기존 예상 대비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낸드 경쟁력. 별 차이가 없다. 버티는 사람이 승자.

낸드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3D 낸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원가와 마진에서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음. 삼성전자가 20% 초반의 마진이라면 경쟁사와는 10~20% 수준의 마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128단까지 삼성전자가 한 번의 에칭으로 채널을 형성한다면 경쟁사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장비사에도 신규 장비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가고 있음.

그러나, 232단으로 보면 개발 시점 (Customer sample 기준)에서 올해 3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일하고, 마이크론은 2분기 말로 격차가 거의 없음. 또한, 중국의 YMTC도 올해 3분기에 CS를 목표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기술 격차가 크게 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

디램처럼 소자를 빠르고 막질을 얇거나 높게 구성하는 기술적 차이가 없이 누가 많이 쌓는가라는 다소 단순한 경쟁구도. 향후는 누가 몇 번의 Stacking 과정을 통해 단수를 높이는가에서 차이가 나기에 원가 차이도 크게 벌어지지도 않을 것. 단, 키옥시아는 개발 과정이 다소 미뤄지고 있고 투자에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점진적인 경쟁력의 감소가 예상.

애플이 YMTC에서 구매를 결정하고 있을 만큼 고객의 확보에서도 중국 업체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자본과 생산성에서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

삼성전자는 여전히 Stack하는 과정에서 경쟁사가 3번의 stack을 할 때 2번의 stack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외 판매를 자제하며 미국과의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적권과 보조금의 제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파운드리 수율.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소 지연도 불만.

삼성 파운드리의 실적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어 수율 문제가 있었지만 호실적. 향후 5개년 수주잔고가 전년 매출의 8배라는 회사의 언급을 감안하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그러나, 4나노 수율 저하를 초기에 다소 지연되었고 현재는 예정된 수율로 진입하였다는 생각은 다소 안일하다는 판단.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였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비용을 보상하다 보면 마진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

파운드리도 원가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시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 때문에 퀄컴과 엔비디아가 TSMC 이외 멀티 소싱 전략을 가지고 삼성전자에게 주문하고 있지만, 불만이 쌓이면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없음.

현재 글로벌 빅 6 Fabless 회사 (애플,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미디어텍) 중에 애플과 미디어텍은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쉽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인텔과 AMD의 물량 일부를 수주 받겠지만, 대부분 물량은 TSMC로 가고 있음. 여기에 퀄컴과 엔비디아의 수주가 감소한다면 삼성전자가 다른 고객으로 물량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팍을 운영하기 어렵게 됨. 그렇다면 더욱 수율을 개선하는 데 불리하게 되고, TSMC와의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음.

삼성의 파운드리 인력은 TSMC의 1/3 수준. 부족한 인력이 문제라면 다소 마진을 희생하더라도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음. 물론 투자자들은 당장 비용이 늘고 손익이 불안하면 주식을 팔 수도 있음. 그러나, 부족한 자원으로 앞서 있는 경쟁사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음.

메모리에서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만큼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가는 것도 어려움. 문제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라고 판단.

삼성전자 실적 전망

(십억원)	1Q21	2Q21	3Q21	4Q21	1Q22P	2Q22E	3Q22E	4Q22E	2021	2022E	2023E
매출액	65,389	63,672	73,979	76,566	77,781	76,304	81,336	84,762	279,605	320,183	350,898
반도체	19,016	22,485	26,113	24,997	27,024	29,104	32,629	33,017	96,677	125,863	137,428
DRAM	8,584	11,249	12,513	11,412	12,152	14,130	15,119	14,372	43,759	55,774	56,900
NAND	5,842	6,877	7,943	7,397	8,092	9,524	10,440	10,909	28,060	38,965	47,039
LSI	4,590	4,359	5,656	6,188	6,780	5,449	7,070	7,735	20,793	27,034	34,050
디스플레이	6,923	6,868	8,863	9,058	7,970	8,339	9,442	9,758	31,713	35,510	38,464
OLED	6,404	6,348	8,318	8,510	7,646	8,031	9,150	9,191	29,580	34,017	37,419
통신	29,206	22,674	28,420	28,951	32,370	32,369	32,643	33,533	109,251	130,916	141,019
핸드셋	26,444	20,605	24,891	25,921	30,063	30,097	30,337	31,226	97,861	121,724	131,686
CE	15,355	15,815	16,502	18,201	18,140	16,492	16,621	18,455	65,872	69,707	73,426
영업이익	9,383	12,567	15,818	13,867	14,121	15,517	16,663	15,383	51,634	61,684	60,359
반도체	3,397	6,922	10,090	8,974	8,450	11,027	12,111	11,043	29,383	42,631	37,640
DRAM	2,919	5,175	6,633	5,821	5,591	7,066	7,863	7,044	20,549	27,564	25,495
NAND	661	1,529	2,807	2,534	2,019	3,416	3,400	2,955	7,531	11,789	7,692
LSI	-184	218	650	619	841	545	848	1,044	1,304	3,278	4,454
디스플레이	364	1,282	1,492	1,319	1,090	1,136	1,372	1,201	4,457	4,799	4,433
OLED	403	423	1,497	1,347	1,090	642	1,372	1,195	3,670	4,300	4,440
통신	4,393	3,235	3,356	2,664	3,820	2,879	2,576	2,335	13,648	11,610	14,053
핸드셋	4,138	3,080	3,062	2,462	3,668	2,709	2,427	2,186	12,743	10,989	13,392
CE	1,229	1,170	919	927	900	534	663	865	4,245	2,962	4,472
영업이익률 (%)	14.3	19.7	21.4	18.1	18.2	20.3	20.5	18.1	18.5	19.3	17.2
반도체	17.9	30.8	38.6	35.9	31.3	37.9	37.1	33.4	30.4	33.9	27.4
DRAM	34.0	46.0	53.0	51.0	46.0	50.0	52.0	49.0	47.0	49.4	44.8
NAND	10.1	20.1	32.1	31.1	22.6	32.6	29.6	24.6	24.3	27.5	16.4
LSI	-4.0	5.0	11.5	10.0	12.4	10.0	12.0	13.5	6.3	12.1	13.1
디스플레이	5.3	18.7	16.8	14.6	13.7	13.6	14.5	12.3	14.1	13.5	11.5
OLED	6.3	6.7	18.0	15.8	14.3	8.0	15.0	13.0	12.4	12.6	11.9
통신	15.0	14.3	11.8	9.2	11.8	8.9	7.9	7.0	12.5	8.9	10.0
핸드셋	15.6	15.0	12.3	9.5	12.2	9.0	8.0	7.0	13.0	9.0	10.2
CE	8.0	7.4	5.6	5.1	5.0	3.2	4.0	4.7	6.4	4.2	6.1

자료: 삼성전자, 삼성증권 추정

포괄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E	2023E
매출액	230,401	236,807	279,605	320,183	350,898
매출원가	147,240	144,488	166,411	187,158	210,905
매출총이익	83,161	92,319	113,193	133,025	139,993
(매출총이익률, %)	36.1	39.0	40.5	41.5	39.9
판매 및 일반관리비	55,393	56,325	61,560	71,341	79,634
영업이익	27,769	35,994	51,634	61,684	60,359
(영업이익률, %)	12.1	15.2	18.5	19.3	17.2
영업외손익	2,664	351	1,718	2,135	1,876
금융수익	10,162	12,268	8,543	10,640	10,821
금융비용	8,275	11,318	7,705	9,109	9,361
지분법손익	413	507	730	800	800
기타	364	-1,105	150	-197	-384
세전이익	30,432	36,345	53,352	63,819	62,235
법인세	8,693	9,937	13,444	16,616	16,301
(법인세율, %)	28.6	27.3	25.2	26.0	26.2
계속사업이익	21,739	26,408	39,907	47,203	45,934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순이익	21,739	26,408	39,907	47,203	45,934
(순이익률, %)	9.4	11.2	14.3	14.7	13.1
지배주주순이익	21,505	26,091	39,244	46,418	45,171
비지배주주순이익	234	317	664	785	764
EBITDA	57,366	66,329	85,881	99,414	100,850
(EBITDA 이익률, %)	24.9	28.0	30.7	31.0	28.7
EPS (지배주주)	3,166	3,841	5,777	6,834	6,650
EPS (연결기준)	3,200	3,888	5,875	6,949	6,762
수정 EPS (원)*	3,166	3,841	5,777	6,834	6,650

현금흐름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E	2023E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45,383	65,287	65,105	68,376	79,469
당기순이익	21,739	26,408	39,907	47,203	45,934
현금유출입이없는 비용 및 수익	37,443	41,619	49,056	51,570	54,110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26,574	27,116	31,285	35,103	38,141
무형자산 상각비	3,024	3,220	2,962	2,627	2,349
기타	7,845	11,283	14,808	13,840	13,619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2,546	122	-16,287	-15,791	-6,243
투자활동에서의 현금흐름	-39,948	-53,629	-33,048	-62,772	-59,933
유형자산 증감	-24,854	-37,215	-46,764	-50,000	-50,000
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감	-10,358	-16,190	10,733	-11,858	-8,976
기타	-4,735	-224	2,983	-914	-958
재무활동에서의 현금흐름	-9,485	-8,328	-23,991	-9,869	-9,869
차입금의 증가(감소)	3,745	1,805	-1,825	-10	-10
자본금의 증가(감소)	0	0	0	0	0
배당금	-9,639	-9,677	-20,510	-9,859	-9,859
기타	-3,590	-456	-1,655	0	0
현금증감	6,904	18,686	-1,084	12,793	19,195
기초현금	96,234	103,138	121,824	120,740	133,533
기말현금	103,138	121,824	120,740	133,533	152,727
Gross cash flow	59,182	68,026	88,963	98,773	100,044
Free cash flow	20,015	27,695	17,983	18,376	29,469

참고: * 일회성 수익(비용) 제외
 ** 완전 희석, 일회성 수익(비용) 제외
 *** P/E, P/B는 지배주주기준
 자료: 삼성전자, 삼성증권 추정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E	2023E
유동자산	181,385	198,216	218,163	243,093	268,667
현금 및 현금등가물	103,138	121,824	120,740	133,533	152,727
매출채권	35,131	30,965	40,713	46,622	51,094
재고자산	26,766	32,043	41,384	45,884	46,482
기타	92,601	105,825	97,034	110,621	120,906
비유동자산	171,179	180,020	208,458	222,175	233,153
투자자산	17,561	21,855	24,423	24,870	25,339
유형자산	119,825	128,953	149,929	164,826	176,684
무형자산	20,704	18,469	20,236	18,609	17,260
기타	13,089	10,744	13,870	13,870	13,870
자산총계	352,564	378,236	426,621	465,267	501,820
유동부채	63,783	75,604	88,117	84,416	84,514
매입채무	8,718	9,739	13,453	12,546	13,981
단기차입금	14,393	16,553	13,688	13,688	13,688
기타 유동부채	40,671	49,312	60,976	58,182	56,845
비유동부채	25,901	26,683	33,604	33,642	33,670
사채 및 장기차입금	975	948	510	510	510
기타 비유동부채	24,926	25,735	33,094	33,132	33,160
부채총계	89,684	102,288	121,721	118,057	118,184
지배주주지분	254,915	267,670	296,238	337,763	373,425
자본금	898	898	898	898	898
자본잉여금	4,404	4,404	4,404	4,404	4,404
이익잉여금	254,583	271,068	293,065	329,674	365,036
기타	-4,969	-8,699	-2,128	2,788	3,088
비지배주주지분	7,965	8,278	8,662	9,447	10,211
자본총계	262,880	275,948	304,900	347,210	383,636
순부채	-84,726	-101,607	-102,348	-115,151	-134,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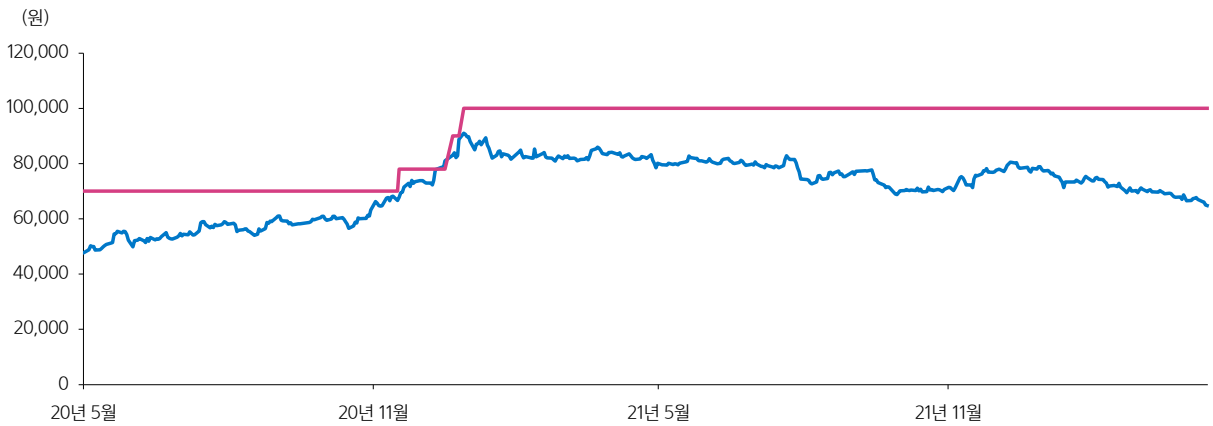
재무비율 및 주당지표

12월 31일 기준	2019	2020	2021	2022E	2023E
증감률 (%)					
매출액	-5.5	2.8	18.1	14.5	9.6
영업이익	-52.8	29.6	43.5	19.5	-2.1
순이익	-51.0	21.5	51.1	18.3	-2.7
수정 EPS**	-47.4	21.3	50.4	18.3	-2.7
주당지표					
EPS (지배주주)	3,166	3,841	5,777	6,834	6,650
EPS (연결기준)	3,200	3,888	5,875	6,949	6,762
수정 EPS**	3,166	3,841	5,777	6,834	6,650
BPS	37,528	39,406	43,611	49,725	54,975
DPS (보통주)	1,416	2,994	1,444	1,444	1,444
Valuations (배)					
P/E***	17.6	21.1	13.6	9.5	9.8
P/B***	1.5	2.1	1.8	1.3	1.2
EV/EBITDA	5.1	6.8	5.0	3.3	3.1
비율					
ROE (%)	8.7	10.0	13.9	14.6	12.7
ROA (%)	6.3	7.2	9.9	10.6	9.5
ROIC (%)	11.5	14.9	20.4	20.6	18.2
배당성향 (%)	39.3	68.5	22.0	18.6	19.1
배당수익률 (보통주, %)	2.5	3.7	1.8	2.2	2.2
순부채비율 (%)	-32.2	-36.8	-33.6	-33.2	-35.0
이자보상배율 (배)	40.5	61.7	119.7	107.0	117.5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2년 4월 27일 현재 삼성전자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2년 4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2년 4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최근 2년간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일 자	2020/1/8	12/1	2021/1/4	1/11
투자 의견	BUY	BUY	BUY	BUY
TP (₩)	70000	78000	90000	100000
과리율 (평균)	-20.53	-5.24	-6.17	-21.02
과리율 (최대or최소)	-2.57	3.85	-1.33	-9.40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기업

-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0%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0%~ 10% 내외
-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0% 이하

산업

-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2.03.31

매수(85.4%) 중립(14.6%) 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